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17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7, 공동 애도, 시편 44편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우 거룩한 땅에 있음을 인식할 때 당신의 은혜로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부정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마다 각기 다른 친구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나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Bill Mounce와 전 세계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 그 내용을 맛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들은 그것을 벌집보다 더 달콤하고 꿀보다 더 치유력이 있는 꿀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소서.

아멘. 관참은. 오늘 우리의 과제는 시편 44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메모를 거기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에 그에 맞는 페이지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페이지가 아닙니다. 노트의 2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한 후에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대상이 적절한 연구 방법을 생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저자이시며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완벽합니다. 그는 인간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Welford가 그의 동시적 이론이라고 부른 것, 즉 완전한 신의 말씀, 완전한 인간의 말씀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동정심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와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텍스트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텍스트는 언어학 법칙 등의 과학적 조사와 단어 연구, 문법, 역사적 배경 및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는 모든 작업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텍스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영적인 측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역사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시편에서 지배적인 인물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시편을 읽는 보통 사람은 시편이 대부분 왕에 관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왕과 동일시되고 시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며 그분과 함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을 읽거나 읽은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편을 여러 종류의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비판적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찬양의 찬송이 있고, 감사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간구나 애도의 시편이 있습니다.

넷째, 윤리와 생명이 없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편집자가 시편 작업을 통해 읽는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윤리적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 시편을 삽입하는 지침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의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율법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공동체를 염려하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는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종종 가난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낮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시편은 바로 이 교훈입니다. 그다음에는 1편에 집중했고, 3편에는 찬양과 감사찬송과 간구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찬송을 살펴보면서 그 모티브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찬양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관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사용하신다는 송영 신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숭고한 속성에 관한 놀라운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노래를 살펴보고 우리의 접근 방식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노래를 마친 후에 우리는 그 노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8편과 100편을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려한 두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찬양은 시편 92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시편이 있었지만 15편이었는데 우리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를 정복했으며 이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시편 92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청원 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적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청원시편 50편 중 47편이 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스스로 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 심판을 받도록 기도하는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윤리적이지만 오늘날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광범위하게 보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한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시편인 시편 3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개인 애도인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아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우리가 끝난 곳인 것 같아. 우리는 공동 애도를 하지 않았습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 저는 두 개의 공동 애가, 시편 90편과 44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편 44편 하나만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가의 시편은 우리에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신학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애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편의 3분의 1은 애도의 시편입니다.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Mobley 교수로부터 고통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땅한 고통과 부당한 고통을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한 고통에 대해 그다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고통이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백미러에 빨간불이 깜박이는 것을 보는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미러에서 빨간불이 깜박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찰관의 불안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몇 백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보험에 대한 처벌을 받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위반한 경우 마땅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이것을 참회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51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땅한 고통입니다. 그의 경우 고통은 실제로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부당한 고통은 법을 어기지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미러에 빨간불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고, 과분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그러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과분한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선교사가 순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당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부당한 일이라면 경찰관이 저를 막고 벌금을 부과한다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밀어붙이자. 그럼, 장애인이 내 앞으로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 멈춰 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서 이제 경찰관은 나를 멈추고 딱지를 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칙을 줍니다. 그건 극단적이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고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시편 44편에서와 같이 그 이상으로 실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22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것을 바로 선택합니다. 내 말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시편을 암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울과 사도들이 어떻게 이 구절들을 골라낼 수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을 맞이한다는 독특한 구절입니다. 그는 사도 공동체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고치고 예수님의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고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과분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의 비유를 사용하여 합당한 고통부터 부당한 고통, 부당한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무고한 사람과 선교사처럼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은 순교자들을 위한 시편이며 그들에게 살아가야 할 진리를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믿고, 무고한 일 때문에든 선한 일을 해서든 부당한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파선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나요? 왜 불공정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그리고 여기서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파선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자신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거의 믿음을 잃었습니다. 나와 함께 거기로 가고 싶다면 시편 73편에서 시편의 두 번째 책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그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항상 칭찬이 있습니다.

그는 칭찬의 메모로 시작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이롭게 행동하고, 아름다운 스타일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발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다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였으므로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악인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항상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과 그 자신의 고난 때문이요, 그 경우에는 무죄한 것이요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는 2절에서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발판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는 믿음과 의의 길을 거의 떠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연구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나중에 시편 73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고 그것의 전체 그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분한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고 길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영화 <천국의 기적>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치명적인 병에 걸리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Moody Institute는 과학 사진을 출판하곤 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과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종사와 초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혼자 비행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 공항의 관제사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에 있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빔에 머물고 당신은 올바른 고도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구름 속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접촉이 사라진 그 구름 속에서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에서 다음으로 듣는 내용은 제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막대기를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스스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회전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점에서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은 그를 확신시킨다.

이런 일이 서너 번 일어납니다. 매번 그는 시각적인 접촉을 잃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울부짖습니다. 그는 이 구름 속에 있어요.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난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이프의 끝입니다.

그는 시각적인 접촉이 끊어져서 난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접촉을 잃으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돌의 위험에 처해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름 속에 있고 이성적 접촉을 잃었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컨트롤, 즉 악기 패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계기로 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접촉이 상실된 이 시기를 악기를 타고 날아가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이 모든 시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진리를 줍니다.

그것은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배를 안내할 수 있는 일종의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과분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는 난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은 시편 안에서 끝난다. 그리고 시편 끝에서도 그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자, 시편 222편을 읽어 봅시다. 그것은 마스크일인 코라크의 아들들에 관한 것인데, 이는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편이 우리를 신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스크일로 표시된 여러 시편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어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지만, 모든 시편이 내가 생각하는 한 마스크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독특한 시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편에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술 용어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셀라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셀라와 같은 단어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칠십인역, 라틴어 또는 타르굼과 같은 고대 역본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영원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들이 다른 단어를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Netzach 라는 단어는 셀라가 아니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동종 언어와 학술 연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문헌에서는 60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가 제안되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모른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놔두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구절의 중간에 바로 나타납니다. 구절 중간에 멈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셀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NIV에서는 1984년에 이 단어가 의미 없는 단어, 아마도 음악가를 위한 단어였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았지만,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넣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좋아요. 괜찮은. 이것이 바로 메시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며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하였나이다 당신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나이다.

당신은 민족들을 멸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예, 단어로 평행성을 주목하십시오. 병렬성을 읽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공지 2A, 당신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2B의 확대를 주목하세요. 심은 것에서 번성하는 것으로의 발전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시를 읽는 렌즈를 끼면 시를 읽는 동안 시가 어떻게 확대되고 강화되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걸 알아차렸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평행법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풍부한 목상이 될 수 있는 시편을 읽을 때 당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칼로 땅을 얻음도 아니하고 그 팔로 구원함도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당신의 오른손이요, 당신의 팔이요, 당신의 얼굴의 빛이요,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야곱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는 적들을 밀어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적을 짓밟습니다.

나는 내 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칼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원수를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적들을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종일 자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우리를 거부하고 낮추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과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기 전에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내버려두시고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혈값에 팔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백성이 우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드나이다. 내가 종일 수욕 속에 살며

보복하려고 하는 원수 때문에 나를 훼방하고 욕하는 자들의 조롱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발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꺾으사 자칼의 소굴이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 신에게 손을 뻗었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므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겠느냐? 그러나 당신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으로 간주됩니다. 일어나세요 주님, 왜 자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는 먼지 속으로 떨어졌습니니다. 우리 몸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루이의 선율에 맞춰 음악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게 시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논의와 모티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편을 이러한 모티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주소가 있습니다. 그는 정당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감과 찬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구절입니까? 시편 1편부터 8편까지 의 어디에서 확신과 찬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른쪽.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1절부터 8절까지의 1절이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그 페이지에서 연주하지 않았습니니다. 쿼트레인입니다.

해당 특정 AB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AB가 있습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찰은.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당신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감으로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신감과 칭찬의 뜻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탄.

그래, 거기서 애도를 얻는다. 그리고 이것도 불만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많은 시편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애도는 16절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러면 독특한 새로운 모티브를 얻게 됩니다. 글썄, 이것이 선을 행하는 데 대한 고통, 즉 다음 단계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항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17일부터 계속되는 새로운 항의 모티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청원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오른쪽. 23시부터 Awake O Lord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해의 렌즈를 갖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리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1절부터 8절까지는 확신과 찬양이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애도가 있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항의가 있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항의가 있습니다. 청원.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구조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모든 시편에는 그들의 모든 감정, 마음의 고뇌와 함께 항상 엄청난 대칭성과 구조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조종사처럼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설득력 있는 사고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특별한 시편은 1절에 두 줄이 있고, 3절에 두 줄이 있는데, 이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찬양과 확신에서 우리가 실제로 10줄의 히브리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에는 여덟 줄의 히브리 시가 나옵니다.

9부터 16까지 세어보면 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의에는 여섯 줄의 히브리 시가 있습니다. 17부터 22까지입니다.

그 다음 청원서에는 네 줄의 히브리 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줄, 8줄, 6줄, 4줄이 됩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편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든 고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의 감정은 그의 길과 그의 사고 능력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평온함과 평온함을 보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안했는데, 그 사람은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의 리터보쉬(Ritterbosch)에 살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지구라트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있는 지구라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라트가 있고 큰 기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다른 고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대기에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 시편은 한 부분이 다른 부분 위에 세워져 있는 지구라트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정의 순간은 마지막 청원이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했고 그는 나에게 지구라트를 오르는 시인 브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편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모티프를 이해하면 좀 더 나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시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좌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나는 이 시를 받아 읽고 있다. 여기에 제공한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시편들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모은 모든 배경 자료, 브루스. 하나님께서는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서 교수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글썄요, 어제 그 맥락은 사무엘에서 다윗과 모든 선수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시편 51편을 폭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축하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인 이유입니다. 즉,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르치고 싶었고, 말씀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에 영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건 내 소명이 아니었어.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은 교회를 먹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목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끝난 곳입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경건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해본 결과,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정말로 말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고마워요. 글썄, 어쨌든, 알았어. 게다가 구조에 관한 한 그것은 10, 8, 6, 4 각각에 속하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처음 다섯 줄의 칭찬과 확신 부분에서 그가 과거를 바라보며 왜 과거로부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다섯 줄에서 그는 자신의 자신감을 표현하며 현재로 나아갑니다. 1절부터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 조상들이 옛날 곧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나 9절로 넘어가면,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우리는 적들을 밀어내고 그분은 그들을 현재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5와 5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애도 부분에서 이 여덟 줄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네 개는 전장에서의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거부하고 낮추셨으며,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적보다 먼저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네 줄에서 그는 자신의 굴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과 패배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따라서 10은 5와 5가 됩니다.

8은 4와 4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의 항의는 우리가 신실하였음을 여러분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분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과분한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세 줄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세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즉, 만약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고통받아 마땅한 일이라면, 그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고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나의 경우처럼 그는 얼굴을 내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지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진영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비난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일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 순교의 죽음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과 그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순교자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청원서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질문이 있는데 왜 자나요? 왜 얼굴을 숨기시나요? 그리고 현실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내려앉아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4와 4가 2와 2 등으로 나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6이 3과 3 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브루스 씨, 번영과 물질주의, 건강과 부, 훌륭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고통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의 일부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만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은, 내가 안전지대에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이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 부, 번영에 대한 잘못된 강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성금요일은 기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활절을 기뻐하지만 성금요일은 주된 특징이 아닙니다. 나의 새로운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내는데, 이 기간에는 여러분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50일 동안 오순절에 살게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코, 저의 오래된 전통에서 벗어나, 저는 결코 제가 아니었던 어떤 종류의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재의 수요일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재의 수요일에 가서 내 죽음과 삶의 어둠을 상기합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사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니다. 나는 전례에 내가 완전히 놓쳤던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을 부, 건강, 번영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하고 배가 고프면 건강, 부, 번영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축하할 수 있는 일요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금식하지만 일요일에는 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례 전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가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거나 무엇이든간에 그는 당신을 영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는 그가 이생에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부활절 일요일을 위해 살고 있으며 부활절 일요일은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시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사람들이 남용하는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는 왜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못된 주석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모르몬교도들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죽은 자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은 여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고통당하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가 말한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세례를 받고 그것과 동일시되어 그들의 자리를 잡고 순교자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 이전의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평안해지도록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일 아침 기도였습니다. 상쾌해지세요.

그리고 나는 모든 면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떨어뜨릴 것이지만, 그것은 매우 상쾌한 일이었습니다. 관찮은.

이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내 생각에 몇 가지 필수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과분한 고통을 겪고 이성적인 접촉을 잃게 되면 그것을 조종사가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각적 접촉이 끊어져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고 비행을 해야 하는 것에 비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악기로 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해 보일 때 이성적인 접촉을 잃게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것을 읽으면서 당신에게 전달된 몇 가지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시편에서. 제가 시편 전반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확신, 성경, 즉 확신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뢰 섹션에서 무엇을 얻나요? 신뢰 섹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나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버지들을 때렸는데, 분명히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것이며, 그를 지탱해주는 것은 경전과 역사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교와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박해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조슈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은 포로되기 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전투중인 왕이기 때문입니다. 망명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원전 600년 이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원전 12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600년이나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미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2,600년 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성도들은 이미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힘, 영적인 힘의 공통된 원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멜라니, 그가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정말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여호수아가 있고 그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통, 즉 모든 시대에 걸쳐 성도들의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큰 부름을 받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큰 부름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녹이고, 셋째는 노아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살해되고,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카이의 아들 스가랴까지 순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아벨은 살해당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인이 이겼고, 부활이 없으면 아벨이 승리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정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죽음 이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당신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전까지는 막연하고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을 바랐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번역하자면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죽습니다. 둘째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최초의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규범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에녹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학적이라면 노아와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아벨은 싫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홍수를 겪기 때문에 결과로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믿음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통해 그들의 믿음에 대해 다르게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음 너머에 에녹과 함께 있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경험한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경험인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귀로 들었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메모에 적은 것처럼, 부모들이 혀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것이 유배되기 전이고 오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시며 민족들을 멸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병렬성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되돌아보고 있으며, 가나안 족속에게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분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조상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요, 자기 팔로 이김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른손이요, 당신의 팔이요, 당신의 얼굴의 빛이요,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칼이 있었지만 엄청난 힘도 있었습니다. 내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인데 나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 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력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주의와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간 이야기에서 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남방 다섯 왕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태양이 중앙 높이에서 아래쪽 계곡의 Aijalon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내 생각엔 태양이 가나안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이 있고, 그들 뒤에는 태양이 있고, 그들 앞에는 달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가나안 사람들이 눈이 먼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금 태양이 그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놀라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나와 우리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보시다시피 주는 나의 왕이시며 야곱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통해 적들을 물리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적을 짓밟습니다. 이제 나는 내 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칼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오지 않지만, 당신과 이제 우리는 우리로 이동합니다. 이상한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이 군대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사람은 군대를 이끄는 왕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왕의 시편으로 마무리합니다. 일단 그것이 여러분에게 공개되면 이것이 왕과 그의 군대에 관한 것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성금요일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여 모두가 그분에게서 흩어진 것처럼 그들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앞뒤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는 적들을 밀어냅니다. 나는 내 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칼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의 모범이다. 이것은 최고의 성전입니다. 비록 정직하게 성전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시위에서 그들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패전한 성스러운 군대이다.

놀랍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배에 빠졌고 그 속에서 살아갈 진리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실망시켰어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우리는 패배를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역경에 처해 있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가 부당한 고통의 시기를 겪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를 여기서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도에 이르렀고 그가 애도의 두 부분, 즉 패배와 패배의 굴욕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매우 문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11절과 12절에서는 패배의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은유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문자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과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기 전에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양처럼 잡아 먹히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헐값에 팔았으나, 팔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적은 돈에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잃었고 그들은 우리를 삼켰고 당신들은 우리를 팔았지만 우리는 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비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단지 약간의 비용으로.

적도 없고 변성하고 변영하며 우리를 약탈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했듯이 건강, 부, 복음, 변영,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왕이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부끄럽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솔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우리를 대명사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군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그들 사이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하나의 큰 농담일 뿐입니다. 그는 군대에 관해 농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특정 군대에 대해 농담을 하는데 그 군대는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농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는 왕이 있고 그는 치욕 속에 살고 있으며 수치심을 얼굴을 붉힙니다.

내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덮여 있다. 내 생각엔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뜻인 것 같아. 복수하려는 원수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의 조롱에 대하여.

이제 항의가 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항의입니다. 이것은 과분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해체를 수반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만 망각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역사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언약 곧 십계명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나 형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험에 처한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발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꺾으시고 자칼의 소굴로 삼으시는 등의 일을 하셨나이다.

그 전에는 뭔가를 건너뛰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애도 섹션에서 어떤 진실을 얻었나요? 당신은 살아야 할 진리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확신, 역사, 성경,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 신앙의 시녀입니다. 당신은 탄식에서 어떤 진실을 얻나요? 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꽤 무력해 보입니다. 확실히 우리에게도 꽤 무력해 보입니다. 그건 좋은 지적이야.

그것이 현실입니다. 글썄, 나는 우리의 번영 때문에 나 자신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신학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그게 바로 솔직함이에요.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글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얻는 것입니다. 9절을 주목하세요. 당신이 해냈습니다.

10, 너, 11, 너, 12, 너, 13, 너, 놓칠 수 없어. 당신, 당신, 당신, 당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앞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순교자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ISIS와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고정을 지탱해 줍니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여기 있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리의 신뢰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키우지만, 나에게는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멘. 나는 그가 시위 중에 자신의 신앙을 선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의하고 불평만 하는 대신 똑같은 짓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당신이 저를 여기로 보내셨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구름 속에 있다. 나는 이성적인 접촉을 잃었지만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믿음의 진술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걱려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들은 우리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걱려가 됩니까? 브루스, 몇 달 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독서를 주도했습니다. 방금 시편 75편과 75편에 집중했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당신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도중에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방금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혼합물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는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진실이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그림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괜찮은.

이제 우리가 왔고 이것, 다음 것은 이 모든 것이 왔고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발이 빛나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행하였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짓밟으시고 자칼에게 힘들게 하시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 신에게 손을 뻗었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므로 그것을 발견하지 아니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외적인 준수만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우리는 성실함과 믿음,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시편 50편에서처럼 당신이 외적으로 위선적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Paul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이 경건한 군대와 왕이 제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겪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겪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그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게 어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고 그의 일은 십자가에 달려 겸손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일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 저는 성경과 역사를 얻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주권을 얻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내 믿음을 지탱해 주는 모범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주님, 왜 자고 계십니까? 자신을 깨우십시오. 이것을 영원히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단지 이것이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데, 루이스가 말했듯이 관절이 피투성이가 되어 문이 절대 열리지 않을 때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뒤로 물러서서 위층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리고는 완전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흠 속에 있어야 할 자는 뱀이었지만 우리는 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은 뱀처럼 땅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굴욕적입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시편의 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죽음 속에서도 느끼는 곳에 남겨두고,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끝입니다. 그런 다음 음악 감독에게 넘겨집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응답하셨지만 시편 기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정경에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답을 볼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방금 겪은 순교자들을 위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 시편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7, 공동 애도, 시편 44편입니다.